

美 상호관세 공식 발효...한국 25%, 中 총 104% 폭탄

57개국에 11~50% 상호 관세 부과

중국 상호 관세는 34%→84%로 확대...총 1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이른바 '상호 관세'가 정식 발효됐다. 미국 행정부가 57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9일 오전 0시1분, 한국 시간 오후 1시1분을 기해 효력이 생겼다. 이 시점부터 미국 행정부가 특정한 57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는 11~50%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국가별 주요 세율은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이다.

중국의 경우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책정한 상호관세율은 34%였다. 그러나 중국이 동물의 관세 및 회도류 수출 통제 등으로 맞서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50% 추가 관세를 단행했다. 이로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매겨진 추가 관세는 10%씩 두 차례 20%에 기존 상호관세 37%, 추가 50%, 도합 총 104%에 이른다. 그 외 중국의 우회 수출국이자 미

국 다국적 의류 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인 베트남(46%), 캄보디아(49%), 방글라데시(37%) 등 아시아 국가에 높은 세율이 부과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목표는 일견 명확해 보인다. 그간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자국을 상대적으로 각국의 불공정 관행을 고쳐 놓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국공화당하원위원회(NRCC) 연설에서 "많은 국가가 좌우에서 우리를 갈취했다"라며 "이제는 우리가 갈취할 차례"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더 강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성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지지자 표심 단속과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해 국내정치적 으로 관세 의제를 끌고 가리라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향후 감세를 위한 세수 확보 차원으로 종종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기대하는 소정의 목표 액수를 달성하기 전까지 관세를 해제하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곳곳에서 나온다. 물론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미국 통상 수장인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호혜주의를 달성하고 우리 무역 적자를 해소할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대화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50

곳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협상을 요청했다. 국가별로 협상 진행 속도는 다를 것으로 보이며, 관세 외 쿼터제 등 비관세 장벽도 협상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간담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이후 한·미 양국 합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면서도 한국의 '군사 비용'을 언급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 외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체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뉴스스

제2기 여수세계박람회장 서포터즈 모집...14일까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업 및 행사 홍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제2기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총 12명(개인)을 모집하며, 박람회장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포터즈에 선발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발대식·서포터즈 DAY 등 오프라인 행사 참석과 박람회장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여러 활동을 하게 된다.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메일(dy425@ygpa.or.kr)을 통해 지원서와 자율제작 콘텐츠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yg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조순의 기자

광양만권경자청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024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조합회의에서 위촉한 정영균 전남도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박봉열 전직 공무원, 양호석 공인회계사 등 3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봤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광양만권경자청의 주요 사업인 경도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과 읍촌제1산업단지를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광양만권경자청은 이번 결산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검사 의견서를 오는 5월 말 예정된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재정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양=조순의 기자



전남, UCLA 한국 문화의 밤서 남도 맛·매력 알려

전남 농수산식품과 주요 관광지, 남도음식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행사 관계자와 관광객 등에게 전남도 아마존 브랜드관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인 오징어 튀김 스낵과 유자 주스 시음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전남도 대표 관광지와 남도음식을 선보였다.

전남도 미주사무소는 한울림 한국 문화 인식 그룹이 지난 5일 UCLA 대학에서 열린 '한국 문화의 밤' 행사에서 전남도 미주사무소는 한울림 한국 문화 인식 그룹이 지난 5일 UCLA 대학에서 열린 '한국 문화의 밤' 행사에서 전남도 미주사무소는 한울림 한국 문화 인식 그룹이 지난 5일 UCLA 대학에서 열린 '한국 문화의 밤' 행사에서

광주 2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 11분기 연속 기준치 ↓

광주상의, 47개 소매·유통업체 대상 조사

광주지역 올 2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도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9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수가 지난 분기(85)보다 하락한 72를 기록하며 경기 악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장기화되고 최근 국내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내수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결과로 체감경기가 지난 2022년 3분기(114) 이후 11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란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의 뜻이다. 이번 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57.4%)이 가장 큰 걱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내 정치 불확실성(46.8%), ▲비용 부담 증가(40.4%), ▲미국 수입관세 부과(17.0%), ▲중국 전자상거래 국내시장 영향력 확대(12.8%),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12.8%) 등을 주요 원인으로 응답했다. 업체별로는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모두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마트(75)는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기준치(100)를 하회했으며 백화점(50) 또한 트럼프발 관세 인상,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체감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편의점(59)은 내수 침체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다이소와 같은 경쟁채널 등장 등으로 슈퍼마켓(91)은 고물가 영향으로 소용량·다빈도 구매가 증가하고 편의점보다는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이전 분기(73)전망치보다는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악화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발 수입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해 소비시장이 둔화될 것인지에 대해 응답업체의 80.8%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또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인지에 대해 응답업체의 78.8%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해 응답업체의 87.2%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승준 기자

광주·전남 3월 취업자 3만1천명 감소

상용 줄고 임시·일용직 증가...고용 환경 악화

광주와 전남지역 3월 고용률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보다 임시·일용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61.8%)대비 1.4%p(포인트) 감소했다. 전남 고용률은 65.8%로 전년동월(66.5%)보다 0.7%p 하락했다. 실업률은 광주 3.1%, 전남 2.4%로 각각 0.1%p 상승했으며 광주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1000명(6.0%) 증가했고, 전남 실업자는 2만4000명으로 1000명(3.5%) 늘었다. /권형안 기자

다. 광주는 전체 취업자 수가 77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만 9000명 줄었고 전남은 취업자 수가 100만명으로 1만2000명 감소하는 등 양 지역에서 총 3만1000명 줄었다. 고용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광주 상용근로자 수는 1만6000명(-3.6%) 줄어든 반면 임시(4.8%)·일용근로자(7.7%)는 각각 7000명, 2000명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감소(-6.6%)했으나 임시근로자(2.6%), 자영업자(2.1%), 무급가족종사자(6.3%)는 늘었다. /권형안 기자

신창·하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창 80명·하남 100명 예비입주자...시세 60~80% 임대료

광주도시공사는 신창 도시공사 아파트와 하남2지구 다사로옴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도시공사는 신창 80명, 하남 100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대규

모 세대가 퇴거를 앞두고 있어 보수공사를 마치고 올해 신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부터 25일까지 광주도시공사 1층에서 현장 접수하며 등기우편 접수 또한 가능하다. 공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 도시공사 홈페이지 임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콜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권형안 기자

아린 맛 줄인 ‘토란 떡볶이 밀키트’ 개발

전남농기원, 지역 가공업체 기술이전...소비 촉진키로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곡성의 대표 특화작목인 토란의 소비 확대를 위해 아린 맛을 줄인 토란 떡볶이 밀키트와 스틱형 부침가루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곡성 토란은 전국 생산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 제 108호로 지정된 전남의 대표적 특화품목이다. 토란은 칼륨, 칼슘과 같은 무기질과 필수아미노산, 베타민C,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갈락탄, 뮤신, 펠라토닌과 같은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혈압 조절, 변비 개선, 항당뇨, 면역 증진 등 효과가 있다. 하지만 토란은 대부분 원물이나

겉질을 제거한 형태로 냉동 유통되며 저장기간이 5~6개월 짧고 특유의 아린 맛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소비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도 농기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곡성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토란의 아린 맛을 줄이고 편이성을 높인 소재와 가공제품을 개발을 위해 2년 간 연구한 끝에 원물 대비 30%의 아린 맛 성분을 줄인 건조분말 소재를 개발했다. 토란 떡볶이 밀키트는 아린 맛을 줄인 토란분말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연령층이 맛있게 먹도록 조리가 쉽고 떡볶이 소스를 개발해 만든 제품이다. 또 스틱형 토란 부침가루는 전남 청년 창업타운 입주기업인 곡성 팜야와 협업, 1인 가구나 캠핑족 등 최신 트렌드에 맞춰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기존 토란 부침가루 제품을 스틱형으로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김 호 기자

한국은행 광주본부

대학생 통화정책 경시대회

한국은행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화정책 결정 모의 체험 기회가 주어지는 '2025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연다. 이 대회는 올해 22회째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과정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입상팀에는 표창장을 수여하고 전국 결선 금상 수상팀엔 장학금 1000만원을, 지역 예선 최우수팀엔 장학금 250만원을 지급한다. 우수 성적자는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경시대회도 지난해처럼 예선은 서면 방식의 보고서 제출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지역 예선과 전국 결선은 대면 방식의 발표·질의응답 형식으로 치러진다. 예선은 팀별로 제출한 '5월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 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진행한다. 예선 통과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역 예선은 7월14일~16일 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열리며 팀별로 7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을 15분 내에서 발표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15분 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금상·은상·우상, 장려상 입상팀을 가린다. 결선은 '8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을 15분 내에서 발표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20분 내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금상·은상·동상·장려상 입상팀을 선정한다.

광주 규제자유특구 “ESS발전사업자와 저장전력 직거래”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광주광역시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ESS발전사업자가 직접 저장전력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담긴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규제개선이 최종 완료됐다.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ESS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태양광·풍력·조력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대부분

은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에 동 특구는 지난 2020년 지정된 이후, ESS 전력저장설비와 전력직거래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ESS 등 전기저장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사용자 또는 전기차 충전고객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특구사업자는 250kW, 118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고 여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기차 충전소와 공공건물 등에 각각

600kW를 공급·판매 하는 등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성공적인 사업화 모델을 구축했다. 앞으로 전력시장 내 ESS 활용과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구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를 통해 재생에너지전기가 직접전력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규제가 적기에 개선됐다”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자유특구 운영으로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